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박지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정 윤 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선수로 크게 성장하려면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한다.’

한국 스포츠계의 오랜 속설이다. 토털 사커(total soccer)의 창시자인 네덜란드의 명장 리누스 미셸(Rinus Michels) 감독의 ‘승리는 어제 내린 눈일 뿐’이라든지 역시 네덜란드 출신으로 20세기 후반의 유럽 축구 미학을 대표하는 요한 크루이프(Johan Cruyff)의 유명한 말, 즉 ‘축구를 하기는 쉽다. 그러나 쉽게 축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와 같은, 그런 수준의 명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국가대표로 뽑히려면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속설은, 어떤 본질을 순식간에 드러내는 말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아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감득이고 지도자다. 다른 분야에도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다. 자상한 담임을 잘 만나고 꼼꼼한 지도교수를 잘 만나고 추진력과 리더십을 지닌 직장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특히 한국처럼 무한경쟁 속에서 연줄과 인맥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통용된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속설과 충언이 한국의 스포츠계에서는 그

어떤 조건에 우선하는 대현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아버지’ 곧 감독을 잘 만나면, 뛰어난 지도력과 자상한 인격을 지닌 그로 인하여 해당 선수(아직 학생일 경우 이제 겨우 청소년기에 접어든 유망주)가 앞으로 운동선수로 성장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20세기,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규칙보다는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인맥, 일정한 헌신성이 압도했던 시기에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선수로의 길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감독들이 제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길러낸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인 성취는 이러한 헌신과 정성에 의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여자프로배구를 시작으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로까지 번진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사태는 21세기가 한참이나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20세기의 훈육과 통제와 폭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유명축구 선수인 K와 관련된 ‘학교 폭력’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었는데, 필자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K선수를 옹호하기 위해 당시 함께 합숙했던 동료가 쓴 글이다.

요약하자면 “그때 축구부 합숙소가 군대 막사처럼 생겼다. 20명~3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생활했다. 당시는 체벌이 당연하던 시대였다.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 선수들을 거칠게 다룰 때였다.” 그런 시공간에서 K 선수가 ‘나쁜 짓’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인데, 필자는 그 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바로 그와 같은 환경을 문제 삼고 싶다. 한 번 더 들어보자. “모든 스케줄은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수시로 감독했고, 우리들은 판짓을 할 수 없었다. 선수들이 일탈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학교 앞 문방구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통제를 받았다.”

이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 자체가 근절해야 할 과거 아닌가. 이 자체가 근립하고 통제하는 한국 스포츠의 오래된 ‘아버지’ 문화 아닌가. K 선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십수 년 전의 일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소식을 아울러 전한다.

2021년 2월 19일 <한국일보>는 수도권 15세 이하 축구클럽의 ‘아버지’가 축구화 등으로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아버지’는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어린 선수(정확히 말하면 중학생)의 고막이 파열되는 일까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경기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아이들 뺨을 때리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얼굴에 침을 뱉고 선수단 버스에서 축구화로 폭행을 가했다. 2021년 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어느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의 ‘아버지’가 하키채로 선수들(실은 고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연속 보도했다. 이 ‘아버지’ 역시 경기

부진을 이유로 “너! 안 돼. 반드시 안 돼, 이 개XX야!”라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

이런 사례만으로, 필자에게 허락된 분량을 다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스포츠의 폭력문화는 비일비재하다.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에 4만7천여 학생 선수가 있고 그중 20%에 달하는 1만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로 한 방에서 7명 이상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한 방에 10명 이상이 생활한다. 어느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전체 25명이 1층과 2층에서 생활하는데 각 층은 방이 따로 없고 전체가 트여 있다. 어느 축구 명문 고교도 10인실 1개, 7인실 3개, 6인실 2개에서 생활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생활의 차압, 관계의 긴장, 위계질서의 강화, 시공간의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의 통제와 물리적 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십수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능력(수완?) 있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바로 그 ‘아버지’의 지도(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의 경험(인맥?)에 편승해야 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부 ‘아버지’들의 일탈일까, 시스템의 부재 또한 허점일까, 남의 자식이야 어찌 되었든 자기 자식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욕망 때문일까, 아니면 스포츠 그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일까.

필자는 오랫동안 스포츠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단적으로 압축하건
대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의 이중나선에 의한 것이며 이제는 그 이중나선을
끊고, 스포츠가 사회 속으로 들어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와 국가주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가 발리의 닭싸움을 통하여 이미 밝혔듯이, 스포츠는 전문 선수들의 경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격전이다. 기어츠는 발리의 닭싸움에 대하여 “인간과 짐승, 선과 악, 에고(Ego)와 이드(Id), 고무된 남성성이 발휘하는 창조적인 힘과 제어되지 않은 동물성의 파괴적인 힘이 혐오, 잔인성, 폭력 그리고 죽음의 유혈 드라마”¹⁾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이른바 ‘문명사회’의 학자가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시 사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판단하고 서술한 것이 아니다. 기어츠는 그와 같은 ‘유혈 드라마’가 현대 세계의 스포츠 문화 전체에서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한다. 닭싸움을 보면 발리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듯이 야구를 보면 미국인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어츠는 눈앞에서

1) Geertz, C. J. (2009). <문화의 해석>(문옥표 역), 까치, 493.

닭이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싸우는 것은 인간이며 따라서 발리의 닭싸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위를 둘러싼 유혈극”이라고 강조한다.

어려울 것도 없는 이러한 설명을 <Diversitas>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흥분하며 순식간에 동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닭싸움을 ‘고연전’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것이다. ‘한일전’을 대입해도 괜찮다. 발리의 닭싸움이든 ‘고연전’의 농구 경기든 ‘한일전’의 축구 경기든 그 모든 스포츠는 ‘집단, 명예, 지위’의 상징 전쟁이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스포츠는,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의 전면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그에 조응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강고한 결합을 문화적으로 가능케 하는 순간접착제가 되었다. 중세 이래 복잡하게 전개된 영토 분쟁 속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의 주민들을 군사적 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문화적인 방법으로 ‘국민화’하는 길은 ‘국가를 응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의 발달은 기존의 마을공동체를 해체 시켰다. 농부들은 쟁기를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었다.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19세기 중엽은 역사상 최대의 인간의 이동이 시작된 시기로 이 양상에는 도시로 향한 농촌으로부터의 인구 유출, 지역 간의 이동, 마을에서 마을로의 이동, 대양의 횡단, 변경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등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근대 경제의 발전이 인구의 대규모적인 이동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새로이 개선된 교통기관 덕분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게 되었는가 하면 게다가 또 세계적인 근대 경제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이 보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기”²⁾ 때문이다.

이렇게 도시로 몰려든 근대의 시민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새로운 도시로의 정착 과정에서, 비단 신체의 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정 상태의 내면화까지 수행해야 했다. 그것은 사계절의 기후에 따른 순환적인 삶, 일손 부족을 품앗이로 채우는 노동의 연대, 농사와 종교 생활의 주기에 따른 놀이로서의 세시풍속 등의 농촌공동체와는 다른 것이었다. 도시에서는, 기존의 농촌공동체적 정서나 놀이가 반근대적이고 반문명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배척받았다. 그 체제의 이행 지대가 학교였다. 근대 초기의 학교는, 산업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근대 도시인을 양성하기 위해 여전히 농촌 공동체의 유습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을 집합하고 훈육하는 이행의 공간이었는데, 그 과도기적 공간은 따라서 외견상 물리적 폭력으로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광범위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산업화 구조에 맞는 사람들이 양성하기 위해

2) Hobsbawm, E. J. E. (1990). <자본의 시대>(정도영 역). 한길사, 322.

설립된 근대의 교육 기관들은 무엇보다 교칙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혹은 교육)하고자 했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는 <문명화 과정>에서 15세기의 폭력적인 행동 양태나 16세기 파리에서 벌어진 요하네스 축제의 고양이 화형식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중세의 이 격렬한 스포츠 문화가 점점 ‘세련화’, ‘문명화’를 거쳐 사라지거나 완화된 것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중세 때 거침없이 표현되었던 감정들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세련되고 합리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문명화된 사회의 일상에서 정확하게 규정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썼다. 엘리아스는 여우사냥 같은 놀이 문화를 예로 들어 공격적으로 표출되던 쾌락이 수동적이고 순화된 관전의 쾌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이 ‘스포츠화’(sportization) 과정은 근대 유럽 특히 영국에서 폭력성이 강했던 민속 경기가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점차 근대스포츠로 변화하게 되고, 이로써 영국 시민 사회의 자기 통제와 자기 규율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스포츠의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는, 김덕영에 따르면 근대적 시민이 “삶과 행위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심리적 기제를 수단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근대적 자아의 결정적인 특징인 내적인 자아 통제 기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능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을 통해 보

장”³⁾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근대 국가는 스포츠 등을 통한 문화 정치를 통해 대중의 신체적 통제와 감정의 순응을 기도하였다. 근대 국가는 이른바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기제로서 스포츠를 선택하여 그 행위의 교육적 측면, 교양적 요소, 정서 순응의 효과를 기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문화적 행위가 올림픽 개막식이다.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국가주의적 스펙터를 문화 정치의 일반적 속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화적 파시즘의 전시장이 되기도 했다. 로버트 팩스턴이 강조한 바와 같이 파시즘의 일반적인 정치적 행동 양상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⁴⁾으로 하거니와, 1936년의 베를린올림픽이나 1964년의 도쿄올림픽 그리고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강하거나 약한’ 형태의 문화적 파시즘 혹은 권현익이 강조한 바와 같은 문화적 스펙터를 통한 통치 즉 ‘극장국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3) Paxton, R. O. 문명화 과정의 사회학. <1999년 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427.

4) Paxton, Robert O. (2005). <파시즘> (손명희, 최희영 역). 교양인, 487.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의도가, 늘 언제나 쾌속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20세기 내내 저마다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거쳐왔고 그것이 그 사회의 의미있는 발전을 정체시키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식적으로 말하여, 이러한 갈등과 모순이 팽배해지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저항이 지속되어 국가(또는 그 무렵의 지배권력)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나 혁명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도식을 거부하고, 바로 그 국가가 혁명에 준하는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고 보았다. 그람시는 이를 ‘수동혁명’(passive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목표는 언제나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문명 유형을 낳고, 그 문명과 폭넓은 일반대중의 도덕을 경제적 생산 장치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요구에 적응시키며, 그리하여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⁵⁾을 만드는 데 있다.

1988 서울올림픽이 증명하듯이, 전후 제3세계에 출현한 비정상적 독재 국

5) Gramsci, A. (2005).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이상훈 역). 거름, 285.

가에서 두드러지는데 독재 국가의 강력한 극우적 지향과 스포츠 국가주의가 결합하여 스포츠를 통한 ‘과민족화 프로젝트’, 즉 “정당성을 결여한 전체주의 국가, 또는 반근대적 독재 체제에 대해 대중이 감정적 애착을 갖도록 선동하는 감정의 정치”⁶⁾가 작동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비단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올림픽만이 아니라 미시적인 스포츠 정책 자체가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임식과 허진석은 박정희 정권의 “체육 정책은 명백하게 국민의 신체 능력을 국가 잠재력의 일부로 간주했으며, 국민의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신체능력 향상 행위가 애국이라는 합리화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체육 애국주의’로 확장”⁷⁾되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확장’의 과정으로 체육전문고교, 태릉선수촌, 대체복무, 연금 및 포상 등의 ‘국위선양’ 프로젝트가 전개되었고 전두환 정권은 아예 이 ‘국위선양’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조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주의 체육’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6) 유선영 (2008).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 334.

7) 임식·허진석 (2009).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1호, 108.

스포츠와 가족주의

이러한 ‘동원체제’는 그에 수반하는 일반 시민들의 강렬한 신분 상승의 욕망과 결합하여 전개된다. 한국의 경우, 그것은 단순히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넘어서, ‘가족주의’라는 강렬한 행위 동기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가족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윤리적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가족 집단의 유지와 이익이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국민교육헌장’ 등의 여러 사례가 말해주듯이 박정희 정권의 문화적 통치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국민동원령 체제의 강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주의의 이데올로기화는⁸⁾ 박정희 체제의 정당성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유교의 충효사상과 함께 정권의 정당성과 대중적 동의를 유도하는 정치 전략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임금 상승과 사회복지에 대한

8) 김혜영 (2016).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험’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3-44.

대중적 수요의 통제 효과”까지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주의는 가족주의를 견인하고 가족주의는 국가주의에 의지한다. 국가는 확대된 가족이고 가족은 축소된 국가다. 그 사이에, 사회는 없다. 도시화, 산업화, 시민화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집단이 작동해야 하는데 식민지와 독재와 가난의 과정에서 사회가 형성될 여지와 시간은 부족하였다. 문밖을 나서면 국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김동춘이 밝혔듯이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는 오랜 유교적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의 억압과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자본주의적 경쟁체제 하에서의 생존과 지위 획득”⁹⁾과 관련이 있다. 이 불안하고도 공포스러운 맹진(盲進)의 근원은 멀게는 전쟁과 그 이후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치른 팽팽한 사회 경쟁 경험이었고 가깝게는 무엇보다 1997년의 IMF 사태였다.¹⁰⁾

IMF 사태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해체되는 결절점이지만, 그러나 형태적인 해체와 달리, 그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의 격

9) 김동춘 (2002). 유교(儒敎)와 한국의 가족주의 -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사회〉, 55, 93-118.

10) 김덕영. 문명화 과정의 사회학. 〈1999년 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열한 경쟁 체제에서, 가족주의는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IMF 사태 이후 가족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극단적인 경우 해체되거나 붕괴되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언제든 위협천만한 야만의 사회 상태에 먹잇감으로 내던져질 수도 있다는 공포 의식에 사로잡혔다. 90년대에 아주 잠깐 ‘중산층’의 신기루를 맞본 한국 사회의 가족은 자녀의 진학과 부동산에 몰입하였다.

이제 다시 스포츠로 눈을 돌려보면,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이중나선으로 결합하여 돌진해온 한국의 드라마에서 ‘국위선양’, ‘골프대디’, ‘사커맘’ 등의 용어가 수시로 접합하였는지, 그리고 이른바 ‘아버지’, 즉 감독의 권위가 그토록 강하였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사태로 ‘합숙소 문제, 선수 폭행, 입시 비리’ 등이 한국 스포츠의 이면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하였는지 알 수 있다. 스포츠가 ‘사회’에서 다양하고 왕성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국가’의 상징이거나 ‘가족’의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실제의 부모들의 일그러진 욕망도 함께 작동한다. 2011년 4월 7일 자 <뉴시스> 기사를 보자. 2010년 브리티시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우승을 거둔 호주 동포 정연진(당시 21세)은 그 무렵 자신을 15살 때부터 가르쳐온 호주 출신의 골프 코치 트레버 플레이크모어와 결별하게 된다. 플레이크모어에 따르면 그는 정연진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이메일을 통

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아들의 정신력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정연진의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강한 한국인의 정신력이 없어지고 서구화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했다.

■ 스포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2020년 8월 4일, 한국 스포츠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법이 통과됐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위선양’을 제일의 목표로 추가했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1조(목적)의 ‘국위 선양’이 ‘연대’, ‘인권’, ‘행복’, ‘공동체’ 등으로 바뀌었다.

24

통상적으로 국위 선양하면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들 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세계적 수준의 성취를 거둬서 국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용어의 역사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국위 선양’은 일제의 잔재로 여기서 ‘국위’는 단순한 국가의 위상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뜻한다. ‘천황의 존엄과 영광을 선양’, 즉 널리 알리는 것이 국위 선양으로 19세기 메이지유신 때 만들어졌으며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수많은 ‘국가 의례’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이 해방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그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스포츠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

었는데, 그럼에도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될 때는 이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목격한 바와 같이 한국의 스포츠는 국가주의 일변도로 급발진하였으며 개별 선수들과 그 가족들은 바로 이 정책의 가속페달을 직접 밟으면서 생존을 넘어 생계까지 도모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이 그 용어가 법적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연대’ ‘인권’ ‘행복’ ‘공동체’ 등의 단어가 들어갔다. 이것이 단순히 용어의 대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세기 국가주의 용어 대신 21세기의 다양성 용어가 대체되긴 했어도, 실제 스포츠 현장은 여전히 구습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스포츠의 가치와 역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미 2010년대 이후 IOC는 물론이고 세계 스포츠 학계는 기존의 올림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왔다. 그 결정체가 2014년에 결의된 IOC의 ‘올림픽 어젠다 2020’이다. IOC는 올림픽 유치 과정 간소화를 기조로 도시·국가 간 올림픽 분산 개최, 유치 비용 절감, 타 스포츠 단체와 협조 등의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유치가 환경 파괴와 경제 파탄의 이유로 지목되고 심지어 20세기의 유산인 국가주의적 갈등의 격전장이 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자성의 결과다.

최근 IO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12일, IOC는 새로운 개혁안인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 핵심은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 수용, 선수들의 권리 및 책임 강화, 클린 스포츠 활성화, 올림픽의 지속성 및 고유성 강화 등이다. 역시 천문학적인 올림픽 개최 비용의 최소화화 막전 막후에 벌어지는 유치 로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응이다.

요컨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기존 올림픽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뉴노멀 올림픽’이 신속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뉴노멀 올림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당장의 코로나 사태에만 연관하여 ‘비대면, 디지털, 뉴미디어’ 등의 기술 작동 방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동반하는 올림픽으로 회귀해도 된다는 것인가.

21세기 초엽의 인류사적 화두, 즉 환경생태의 위기, 분쟁과 전쟁의 위협, 인종차별, 사회 내의 다양한 혐오와 차별 등이 결합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스포츠가 실현되어야 한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스포츠가 참여할 폭이 상당히 넓다. 우리의 군소 도시들이 활력 잃고 인구

변동, 주거, 교육, 교통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그 이후 7년 동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다. 여기에 2018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수년째 전개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스포츠가 결합하게 되면 스포츠와 관련된 도시 인프라의 확장, 스포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민들의 관계망,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를 전공한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Bilbao)는 1980년대 이후 거의 한 세대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추진했다. 네르비온강의 수질 개선, 보행 위주 교통 체계 개선, 각종 스포츠 시설과 클럽을 통한 실핏줄 같은 인간관계의 회복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시민 참여의, 시민이 실제로 활동하는 거버넌스가 원동력이었다. 영국도 1990년대 말에 도시재생뉴딜사업(NDC)을 전개하였다. 이 약자의 ‘C’는 ‘Communities’, 즉 공동체다. 지방정부, 기업, 시민공동체, 학교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추진하였다. 리버풀, 셰필드, 선덜랜드 등은 단지 ‘축구 종가’의 영국의 ‘명문 클럽’이 아니라 스포츠로 도시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와 일상 문화를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문화 인프라’ 그 자체다.



스포츠 다양성을 위하여

다시 강조하건대 문화와 체육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쪽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과 체육 쪽의 ‘스포츠 도시 사업’이 따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에는 문화기획자나 공동체미술 전문가들이 대체로 참여하고 있다. 쇠퇴한 도심이나 낙후한 소도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곳의 주민들은 그 작업을 ‘구경하는 관람객’이 되는 수가 있다. 한편 체육 쪽의 ‘스포츠 도시’ 사업은 대체로 시설 증개축 사업이다. 이 사업을 냉소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여전히 그 주무부처 안에서도 스포츠는 일반적 의미의 문화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아니라 체육 직능 분야의 폐쇄적인 일 자리나 그 공간으로 제약된다.

이를 흔들어야 한다. 스포츠를 문화 전체로 확산하고 그 시설을 시민들의 일상 문화 전체와 연결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신체와 다양한 기호와 다양

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강건한 정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와 다양한 가치’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다른 여러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법에 비해 스포츠 및 그 시설은 주민이 직접 몸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의 접착제가 되며 도시재생의 유효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스포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 그 가치와 역할의 변화는 우리의 오래된 스포츠 문화 즉 ‘뛰어난 선수들이 격전을 벌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경한다’는 관습을 서서히 해체하게 될 것이다.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의 이중나선이 서서히 끊어지고,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하였듯이 스포츠에 서도 ‘다양성’이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렇게 ‘다양성’이 실현될 때, 선수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고려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수많은 체육 관련 학과 학생 및 전문 학생선수들에게 새로운 가치의 실현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스포츠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따라 국가 스포츠 정책이 전환하고 그에 따라 스포츠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과 일상 문화의 리듬 속에서 재구성되면 굳이 기존 위계질서의 맨 꼬트머리 꼬리칸에 줄을 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럴 때에 ‘선수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오랜 폐습의 속설은 사라질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박 지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가? 과연 그런가?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과 당 위성은 얼마나 설득적인가?

개인적으로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3년 전 여성 게이머 갓건배를 둘러싼 남성혐오 논쟁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고려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이 논문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다. 남성혐오를 정당화 하는 논문을 지도한 교수들이 제정신이나며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의 실명을 언급했는데 지도 교수인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작년 초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근처 식당에서 발생했다. 대학원생 한 명과 점심을 먹으며 학위논문 주제인 여성혐오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간 남학생이 식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와 대학원생에게 “그런 이야기 식당에서 안 하

면 안 돼요?”라고 시비조로 말을 건넸고 내가 “왜죠?”라고 묻자 “밥맛 떨어지잖아요?”라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응수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내가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은 다양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둘러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려대학교 안에서도 존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감은 다양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난 몇 년간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백래쉬(backlash)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에 나는 다양성이 당위적 입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하나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혐오는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성소수자에게 향하는 듯 강하다. 유력 정치인도, 심지어 소수자인 여성들도 성소수자에 대한 불인정과 혐오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 2020년 2월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성별정정을 한 사람의 입학을 거 세계 반대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입학포기를 결심했다.
- 2020년 8월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지하철역 내부의 현수막 광고가 형체를 알아 보기 힘든 상태로 찢긴 채 발견되었다.
-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예비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안철수 예비후보에게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퀴어문화축제를 보고 싶지 않은 개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 2021년 3월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서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빠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론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섹슈얼리티는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2000년대 초 홍석천과 하리수의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성적 다양성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권리는 보장되는가? 성소수자 입학생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학생회관에 걸어도 찢기지 않고, 교수나 학생이 성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논문을 써도 혐오와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대학당국은 보장하는가?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은 질문에 회의적이다. 성소수자

입장에서 변하지 않은 환경은 2007년 입법예고 되었던 차별금지법제정안이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리처드슨(Richardson, 2000)¹⁾이 논의한 성적 권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디어가 재현하는 또는 재현하지 않는 성소수자의 이미지가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Richardson, D. (2000). Constructing sexual citizenship: Theorizing sexual rights. *Critical Social Policy*, 62, 102-135.

■ 성적 권리 또는 성적 시민권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이다. 리처드슨은 성적 권리(sexual rights) 또는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과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논의를 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시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성적권리 중 첫째는 성적 실천(sexual practice)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 사회는 특정한 종류의 성적 실천만을 정상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있다. 성적 행위의 (비)정상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서로 다른 인종 간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는 법(anti-miscegenation laws)을 통해 백인과 비백인 간의 성적 실천을 금지했으며, 2003년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많은 주에서 시행되었던 소도미법(sodomy law)은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소도미법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비정상·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동성 연인간의 성관계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의도적으로 군대 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에 의해 형사 처벌하도록 지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²⁾ 대법원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세 차례(2002년, 2011년, 2016년)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SBS가 그룹 퀸의 보컬 프레드 머큐리의 삶을 다룬 <보헤미안 랩 소디>를 방영하면서 남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실천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성 간 성에 표현은 이성애 규범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정의되고 통제되는 것이다.

성적 권리의 두 번째 측면은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규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성소수자는 LGBT(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2) 김민제 (2019.9.18.). 2년 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군인들 강제전역 내몰렸다. 한겨레.

규정할 수 없는 정체성을 포함하는 ‘퀴어’의 범주로 확장되어왔다. 이에 개인은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할 권리, 규정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공적 영역에서 본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권리, 즉 없는 존재처럼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와 본인의 정체성을 밝혀도 안전할 권리는 특히 중요하다. 리처드슨은 성적인 욕망이 사적 영역으로만 제한되고, 공적 영역에서 성적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사적 영역에서의 권리보다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1994년에 시작해 2011년에 폐지된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제도(Don't Ask Don't Tell)는 군대 내에서 공공연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성적 지향을 말하면 전출 당하거나 강제 전역을 당하게 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제도가 폐기된 후 미 육군 역사상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장성 태미 스미스 준장은 2016년 주한 미8군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제도가 폐지된 후인 2012년 오랫동안 사귀던 파트너와 결혼을 했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동성부부가 호모포비아가 강한 한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다.



트레이시 헤프너(좌)와 그의 아내 테미 스미스 준장(오른쪽)

출처: <http://www.todayus.com/?p=52940>

고려대학교는 어떠한가? 수업 시간에 본인의 성적 지향이나 비규범적 정체성을 밝혀도 안전한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고 강의실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가?

몇 년 전 내가 경험했던 일이다. 학생 발표를 위한 여러 조를 구성했는데 나는 한 조의 구성원 4명 중 3명이 비이성애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4명은 서로의 성적 지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성소수자로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면 이 주제에 대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나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 교실을 안전한 환경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도 한 개인이 비규범적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혔을 때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 제주에서 활동 중인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다음 달 3월에는 강제전역을 당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기홍은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말을 남겼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지는 편견과 혐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권리의 마지막 측면은 성적 관계(sexual relationship)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권리이다. 어떤 성적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해줄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백인-비백인 간의 결혼과 출산이 1960년대 후반까지 많은 주에서 범죄로 간주되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2003년), 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노르웨이(2009년), 스웨덴(2009)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미국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일부의 주들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에서 보장받

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기에 이른다. 반면 한국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3년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김조광수와 배우자 김승환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보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동성결혼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비규범적 성적 권리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은 동성 간 성적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뿐 아니라 배우자 초청 이민, 연금, 증여, 보호자 권리, 세금 혜택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동성결혼이 허락된다면 동성부부는 재산의 부부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하고, 재산의 증여도 가능하며, 해외에 발령이 난 경우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고,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면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동성커플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20년이 지났다. 그 간 무엇이 변했는가? 강의실에서, 동아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혀도 안전한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과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아

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이 가능해질 것이다.



성소수자의 과소재현 (underrepresentation)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미디어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이미지 구성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디어가 성소수자를 재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 중 하나인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는 실제 인물이건, 성소수자 역할의 인물이건 TV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200개가 훌쩍 넘는 한국의 모든 TV 채널을 매일 24시간,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한다고 가정하자. 과연 몇 명의 성소수자가 등장할까? 단언컨대 홍석천이 거의 유일한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만큼 성소수자는 TV에서 잘 재현되지 않는다. 특정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간혹 다룰 뿐이다. 그리고 성소수자 중에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들은 더더욱 재현되지 않는다. 이는 유명인 중 커밍아웃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가 부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한 유명인이 거의 없

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들이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는 방송에서 과소재현(underrepresentation)되는데 미디어에서 재현되지 않는 소수자 집단은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 즉 사회적인 중요성과 존재감을 박탈당하게 된다³⁾. 성소수자의 과소재현은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 존재’ 취급을 당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성소수자가 TV에 등장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무시되기 쉽고 성소수자 관련 의제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44

성소수자가 재현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게이 코드라고 불리는 유사 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는 유행처럼 제작되어왔다. <커피프린스 1호점>(MBC, 2007), <성균관 스캔들>(KBS, 2010), <개인의 취향>(MBC, 2010), <구르미 그린 달빛>(KBS, 2016)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이 상대방의 성별 또는 성적지향을 착각함으로 발생하는 오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이야기적으로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모든 상황

3)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 172~199.

을 알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커피프린스 1호점>에서 남자 카페 사장은 남성 직원과 사랑에 빠지지만 시청자들은 남성 직원이 실제로는 여성임을 알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읽는다. <구르미 그린 달빛>의 경우 왕자가 내시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시청자는 그 내시가 남장 여자임을 이미 드라마 초반부터 알고 있으므로 그 서사를 이성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는 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반면 유사 동성애가 아니라 드라마에서 성소수자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백래시를 경험하는 것이 거의 정해진 공식과도 같다.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2010)는 지상파 드라마 역사상 처음으로 게이 커플을 고정 등장인물로 포함했는데 ‘국가와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은 조선일보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듬해인 2011년 8월 K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스페셜: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은 여러 세대 레즈비언들의 삶을 다루었는데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이로 인해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케이블 방송도 성소수자 재현과 관련된 백래시를 겪었다. 2012년 9월 케이블 채널 KBS Joy에서 <XY그녀>라는 트랜스젠더 토크쇼가 첫 방송되었는데

[illegible]

테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으로 인해 방영이 보류되다가 결국 ‘첫방이 막방’이 되고 말았다. 2015년 2월에는 두 여고생의 키스 장면을 보여준 JTBC의 〈선암여고 탐정단〉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2점을 받았고 이는 제재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⁴⁾ 가장 최근에는 2021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SBS에서 방송된 〈보헤미안 랩소디〉가 두 남성 간 키스신을 삭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졌고 쿼의 객원 보컬로 참여해온 아담 램버트는 SNS에 유감을 표

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 재현에 대한 시청자들의 무관용, 동성 간 성애 표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는 성소수자의 욕망과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삭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성적 권리, 즉 공적 영역에서 본인의 성적 지향을 알릴 수 있는 권리, 즉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재현

성소수자들은 주로 정형화된 이미지, 즉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기반으로 재현된다. 미디어는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성소수자를 타자화시키고 비정상성을 강화하며 이성애 규범주의를 재생한다. 특히 동성애와 에이즈를 결부시키는 고전적인 재현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고 성소수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스테레오타입은 대부분 소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테레오타입이 완전히 허위는 아니고 진실의 알갱이(kernel of truth)를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수자는 스테레오타입을 근거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흑인은 범죄자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 더 많은 의심을 받고 경찰의 잦은 불심검문이 정당화된다. 둘째,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의 역량은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으로 한정되기 쉽다. 돌봄 노동과 같이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대가 여성의 역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적으로 문란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게이로 살아가는 개인은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유능한 사업가, 디자이너, 회사원, 의사,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으로 문란한 게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2020년 5월 이태원의 게이클럽과 속칭 ‘찜방’으로 알려진 블랙수면방에서 벌어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뉴스 보도는 게이와 성적 문란함, 도덕적 타락, 그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에이즈가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관련 뉴스 보도는 게이의 비정상적인 성적욕망 해소방식을 부각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끄고 동시에 게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또다시 부여했다.

본인을 현직 기자로 밝힌 한 개인은 같은 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가 신천지 발 감염을 능가하는 초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몰려있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시간대별 쇼가 제공되는데, 종로에서 술을 먹고 쇼를 보기 위해 이태원

으로 이동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클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게이들이 썸방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것, 게이들이 여러 게이클럽을 돌아다니며 연애 상태를 찾는 현상 그 자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일부 게이들이 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게이들도 이성애자들처럼 자유롭게 본인을 드러내고 데이트 상대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가 게이임을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면 게이들이 굳이 폐쇄적인 장소에서 친구와 연인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게이들의 문란함을 비판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도처에 깔린 이성애자 남성을 위한 성매매 산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성소수자의 재현을 위한 조건

보다 많은 성소수자, 보다 다양한 성소수자 이미지가 생산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성소수자 이미지 변화를 위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에 갤럽이 발표한 동성결혼, 동성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조사⁵⁾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보았고 3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동성애자의 방송연예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26%는 문제된다고 답변했고 67%는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35%, 반대 56%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19~29세 응답자의 62%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한국사회에는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지만, 성적다양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젊은 세대의 입장을 고

5) 갤럽 (2019.05.30.). 데일리 오피니언 제356호 - 동성결혼, 동성애, 서울퀴어문화축제.

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늘어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미디어에서 재현되고, 스테레오타입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성소수자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조건이다.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시장, 소비자, 시청자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방송사, 기업, 광고주들이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하는 콘텐츠와 제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퀴어 문화축제나 LGBT영화제에는 버드와이저, AVIS 등 굴지의 대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OUTFEST라고 하는 성소수자 아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에는 HBO, AT&T뿐 아니라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퀴어문화축제에는 구글, 터바디샵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업 스폰서 참여가 거의 없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성소수자가 소비자나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시장과 소비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때 보다 긍정적인 미디어 재현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많은 재현, 긍정적 재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한국의 시청자 대부분이 성소수자 재현을 거부한다는 근거로 간주하면 안된다. 갤럽 조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동성애자의 방송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67%는 문제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즉, 성소수자 재현을 반대하는 일부의 시청자들이 주로 방송사나 언론사에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청자들도 보다 긍정적인 성소수자 재현을 적극적으로 방송사에 요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적 재현이 이루어질 경우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미디어가 성소수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각 신문사의 독자권익위원회,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성소수자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산업은 학계의 비판보다도 이들 위원회의 반응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BS 시청자위원회는 청년, 환경, 장애인,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속한 전문가를 시청자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등에 위촉한다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대변하고 왜곡적이고 고정관념을 재생하는 콘텐츠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역량 있는 창작자들이 적극

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SBS 주말연속극 <완전한 사랑> (2003), <인생은 아름다워> (2010)가 게이를 고정 인물로 포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청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지를 관찰시킨 작가 김수현 덕분이라고 본다. 영화 <아가씨>가 여성 간의 사랑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박찬욱 감독이 가진 역량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 년 방송사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데 제작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성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 내 학생 중에도 대학 졸업 후 방송사나 신문에 입사하여 성소수자 시선에서 그려진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기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의지가 반영된 일도 있었다.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역량 있는 창작자가 많아질수록 더 다양한 성소수자의 이미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성소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최근 유튜브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소수자들이 재현의 주체가 됨으로써 다양한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중 일부 콘텐츠는 성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얻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영상들이 비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스테레오타입을 재생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다.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하는 것 역시 성소수자들이 생존을 위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본고의 서두에서 숙명여대 사례를 간단히 언급했지만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소수자인 여성들로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젠신병자’(트랜스젠더+정신병자의 합성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다. 서구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중산층 백인 여성의 문제를 의제화하면서 시작했지만 유색인종의 여성, 비서

구 여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가장 발전된 형태의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인종, 계급, 민족,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정체성과 교차하며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유사한 논리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다른 존재들을 인지하고 이들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물학적 여성의 인권만을 페미니즘의 의제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페미니즘의 퇴보라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대학 내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의제가 다른 의제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압의 교차성을 강조하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수자 인권에 대한 거부,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성의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이 다양성을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관련된 과목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학에서 다양성,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가 아니라면 어디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2020년 고려대학교는 사람 중심의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1) 공감소통 역량 (2) 사회적 책임 역량 (3) 융합적 사고 역량 (4) 창의적 문

제해결 역량 (5) 글로벌 역량 (6) 도전적 리더 역량 등 총 6대 핵심역량을 설정했다. 공감소통 역량이 첫 번째 역량인 이유는 이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리더의 소양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단언컨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없이 공감소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내 다양성 교육, 특히 소수자 내에서도 더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고 학내외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이 추진되기 바란다.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문화비평지 계간 <리뷰> 편집위원,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축구장을 보호하라>,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공저) 등이 있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지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상 재현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미디어 생산자, 텍스트, 수용자를 폭넓게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다큐멘터리, 다문화, 인종, 젠더 및 섹슈얼리티 등이 박지훈 교수의 연구를 아우르는 키워드들이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해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술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화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아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Diversitas

권호 11호
발행일 2021년 4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